

# 연세대·송실대 등 7개 대학펀드 조합 202억 조성

정부 150억, 대학은 약정 따라 출자 12개 조합 신청, 평균 1.7:1 경쟁률 대학창업펀드, 2년간 11개 조합 결성

학생 창업 등 대학의 창업기업에 투자되는 펀드 투자조합 7곳이 신규로 선정됐다. 펀드는 정부와 대학 등이 조성한 202억 원 규모로, 초기 자금난을 겪는 대학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된다.

교육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2억 원 규모의 2019년 대학창업펀드 투자조합 7곳을 선정해 9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창업펀드 조합은 ▲연세대 기술지주 ▲전남대 기술지주·광주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 ▲송실대 기술지주 ▲충북대 기술지주·서울과기대 기술지주·벤처박스 주식회사 ▲대경지역대학공동 기술지주·아이앤아처



▲부산대 기술지주 ▲한양대 기술지주 등 7곳이다.

대학창업펀드는 대학내 창업 기업의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75%)와 대학 등(25%)이 함께 조성한 펀드로, 정부 출자는 2017년 120억 원, 2018년 150억 원, 올해 150억 원이다. 펀드 수행기관은 한국벤처투자가 맡고 정부는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통해 대학

창업펀드에 출자하고, 대학 등은 약정 비율에 따라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펀드 약정 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하고, 그 중 50% 이상은 학생 창업 기업(5년 이내 졸업자 포함), 교직원 대표 이사 또는 임원이며 해당자의 소유 지분 합계가 50%를 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투자되는 등 대학 창업 기업에

75% 이상 투자된다. 외부 기업 투자 비율은 25%다.

대학창업펀드는 지난 2017년~2018년까지 2년간 11개 조합 445억2000만원 규모로 결성돼 투자 중에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조합을 포함하면 18개 조합 647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올해 총 12개 조합이 사업을 신청해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모태

펀드 운용 전담회사인 한국벤처투자(주)가 두 차례 심의를 통해 대학의 창업 지원 의지, 펀드 운용 능력 등의 요소를 평가해 최종 조합이 선정됐다.

올해 사업의 정부 예산은 150억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지만, 신규 기술지주회사 참여 확대를 위해 작년에 선정되지 않은 기술지주회사에 지난해보다 25억 원 증가한 75억 원이 배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조합은 올해 말까지 조합 결성 절차를 거쳐 초기 대학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나서게 된다.

임창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의 창업 인재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해 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대학 창업펀드로 인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올해 수능 54만명 본다... 전년비 7.8%↓

작년보다 4만6190명 '덜' 접수 졸업생·검정고시 7897명 늘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4일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 지원자는 54만8734명으로 전년 대비 4만6190명(7.8%)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자 중 재학생은 39만4024명(71.8%), 졸업생은 14만2271명(25.9%), 검정고시 등은 1만2439명(2.3%)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재학생은 5만4087명 감소했지만, 졸업생 등은 7897명 늘었다. 성별 지원자는 남성 28만2036명(51.4%), 여성 26만6698명(48.6%)으로 전년과 큰 차이는 없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학생 지원자는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 어려운 수능을 겪은 뒤 재도전하는 졸업생 지원자는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졸업생 지원자의 경우 상위권 학생이 많고, 학교 대신 대신 수능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대입에서 이들 재수생 강세가 예상된다.

영역별 지원자는 국어 54만5966명, 수학기형 16만7467명, 수학나형 35만4984명, 영어 54만2926명, 사회탐구 28

만6582명, 과학탐구 23만1902명, 직업탐구 6415명 등이다. 전년과 비교해 과학탐구 지원자가 3만582명(11.6%) 큰 폭 감소했다.

탐구 영역에서 최대 과목수인 2과목 선택자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사회탐구에서는 '생활과 윤리', 과학탐구에서는 '지구 과학 I', 직업탐구에서는 '상업경제' 선택자가 가장 많았다.

제2외국어/한문 선택자는 전체 수능 지원자 중 16.3%(8만9410명)로 집계, 전년 대비 3.3% 감소한 가운데 '아랍어 I' 선택자가 70.8%로 가장 많았다.

/한용수 기자

## '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전 총남지사)

대법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안희정, 항소심 선고 후 법정구속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총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 들었다. 대법원은 이날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9차례에 걸친 성폭행·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



안희정 전 지사가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

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했다. 안 전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손현경 기자

## 신입공채 합격 여부는 '면접'이 좌우

사람인, 기업 263곳 설문 조사

올 하반기 기업들의 신입공채에서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형 요소는 면접전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사람이인 하반기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 263개사를 대상으로 전형별 당락에 미치는 비중을 대해 묻은 결과, 면접 전형을 꼽은 응답 비율이 58.3%로 가장 컸다. 이어 서류전형이 35.3%였고, 인적성·필기전형은 6.2%에 불과했다. 면접전형 내에서는 실무면접이 58%, 임원면접이 42%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채용단계는 기업규모별 차이

를 보였는데, 대기업이 평균 3.3단계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 2.7단계, 중소기업 2.2단계였다.

전형요소로는 대다수 기업(86.3%, 복수 응답)이 면접전형(실무면접, 인성면접)을 치르고, 서류전형(72.2%)을 시행한다는 기업도 많았다. 인적성검사(6.5%), 필기시험(4.9%)을 한다는 기업은 소수였다.

채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면접전형은 평균 1.9회 진행된다. 2단계 면접(53.6%)을 진행하는 기업이 많았고, 1단계 면접(31.6%), 3단계 면접(13.7%), 4단계이상(1.1%) 순이었다.

/한용수 기자

## 조국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대표 이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코링크'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엔티' 대표 최모씨에 대해서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코링크PE는 더블유에프엠 인수 전인 2017년 7월 또다른 운용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 펀드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딸·아들 자금 10억5000만원, 정교

수 남동생과 장·차남 자금 3억5000만원 등 총 14억원을 출자받았다.

코링크PE는 이 자금 가운데 13억8500만원과 전환사채(CB) 10억원 등 23억8500만원을 웰스씨엔티에 투자했다. 이후 웰스씨엔티는 관급공사 177건을 수주하고 매출도 2배로 늘어나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웰스씨엔티 최대대표는 코링크PE측이 23억여원을 출자한 뒤 5000만원만 남기고 모두 빼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링크PE의 실 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후보자의 5촌조카는 아직 해외 도피중이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5촌조카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 서울시교육청 "연휴엔 학교에 무료주차"

서울시교육청은 추석 연휴인 12일~15일까지 4일간 서울 시민과 역귀성객 주차 편의를 위해 서울시내 초·중·고 378개 학교 운동장과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거주지 인근 학교가 개방 대상 학교인지 여부와 학교별 개방시간 등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 내 알림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 주차 시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에 해당 학교를 확인하고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명절연휴 기간 중에도 더 많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주차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